

1920, 30년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지형도:

‘지적 중심 논쟁’ (1927)과 ‘보편주의와 국가주의 논쟁’ (1932)을 중심으로

이 성 훈*

단독/서울대학교

Lee, Seong-Hun (2010), La carta topográfica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de los años de 1920 y 1930.

Abstract Este artículo se trata de dos debates que nos muestran la carta topográfica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de los principios del siglo XX. Uno es el debate sobre el “meridiano intelectual” (1927) en donde podemos observar la relación entre España y América Latina y el otro es el de “nacionalista vs. cosmopolita” (1932) desarrollado en México. Estos debates tienen sentido, siendo unas muestras de que en aquel caso seguía funcionando hasta entonces la estructura opuesta de los discursos entre el cosmopolitanismo representado como España y el localismo de los países independientes y en el último caso, el conflicto sobre el modelo cultural de cada país independiente se ocurría enfocándose en el cosmopolitanismo como el vanguardismo europeo.

El debate de “meridiano intelectual” procesaba, de carácter más directo, en cuanto al modelo cultural latinoamericano entre los intelectuales españoles y los latinoamericanos que escribían principalmente en *Martín Fierro*. A diferencia de esto, el debate de “cosmopolita vs. nacionalista” se desarrollaba en el nivel valorativo sobre qué es la literatura. Mientras así, se puede entender este debate como el problema de cual posición deba elegir en la relación con el vanguardismo europeo del entonces.

A través de la investigación sobre los debates, podemos entender que la cultura latinoamericana de los principios del siglo XX estaba formándose con relación antagónica con la cultura europea, y bajo esta relación amplía cada vez la intención de constituir la propia característica cultural de América Latina.

Key words meridiano intelectual, cosmopolita vs. nacionalista, carta topográfico, cultura latinoamericana
지적 중심, 보편주의 대 국가주의, 지형도, 라틴아메리카 문화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I. 들어가면서

엔리케 로도의 『아리엘』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 이전부터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런 관심사는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낭만주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독립을 옹호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정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유럽과 차별되는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도리스 썸머가 『국가형성문학 *Foundational Fictions*』에서 보여 주듯이 이 시기의 문학 작품은 지역의 언어와 풍경, 그리고 지역의 고민에 주목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체성, 더 나아가 폭넓은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체성의 모색은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 근본적으로 유럽과의 단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 만의 교체를 의미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식민체제의 지속을 용인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독립에도 불구하고 식민 시기부터 이어진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남게 되면서, 스페인 문화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특성을 구성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지속적으로 구심력과 원심력의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나름의 문화적 변용을 진행해 나갔다. 낭만주의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양은 이후, 일정한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기반이 되어 강력한 국민정체성 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국민 정체성 담론은 영토 안의 모든 문화를 국민국가에 통합함으로써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국민 정체성 담론이 독립시기부터 단일하고 완고한 형식을 가지고 출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했으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셔널리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라

틴아메리카 문화에서 이러한 내셔널리즘에 대한 항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는 불균등한 발전과 다양한 종족의 존재,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경계, 글로벌한 층위의 교섭 등이 바로 구심력에 대응하는 항력, 즉 원심력이다. 한마디로, 문화적 구심력과 원심력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단수의 정체성과 복수의 정체성, 단일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 고유성과 보편성 사이의 긴장을 유발하는 동력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원심력과 구심력의 긴장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갖는 역동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입장은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실체적인 어떤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심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하는 불안정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구성적 성격을 확인하면서 역사적 계기를 통해 부단히 재생산되고 재구성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고, 아울러 이 현상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혀줄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이후 20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지형도를 보여줄 두 개의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1927년의 ‘지적 중심’ (meridiano intelectual)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멕시코 내부에서 1932년 진행된 ‘보편주의 대 국가주의’ (cosmopolita vs. nacionalista) 논쟁이다. 앞의 논쟁은 20세기 초반 여전히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국제성과 독립국가의 지역성이라는 대립적인 담론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민족 국가 내부에서 문화적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전위주의로 대표되는 국제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지형을 잘 보여줄 것이다.

II. 두 논쟁의 배경 및 경과

1. ‘지적 중심’ 논쟁의 전개

이 논쟁은 기예르모 데 토레(Guillermo de Torre)가 1927년 4월 27일자 『라

가세파 리페라리아 *La Gaceta literaria*』에 무기명으로 「중남미의 지적 중심으로서 마드리드 Madrid, meridiano intelectual de Hispanoamérica」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기예르모 데 토레는 이 글에서 독립 이후부터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명백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문화적 영향 관계를 가시적이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드러냈다. 즉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던 지적 태도, 다시 말해 유럽의 대도시 혹은 스페인으로부터 “결정적이고 완벽하게” 분리하려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급진적이고 반복적인 고민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시화 한 것이다(Alemany Bay 1998, 14).

[...]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신적 지리학 내에서 마드리드를 가장 정확한 극점이자, 아메리카와 스페인 사이의 가장 진정한 상호 교차점으로 위치시켜야 한다.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좁고 편파적인 ‘라틴주의’의 축소판인 파리에 맞서 마드리드는 균형 잡히고, 모방적이지도 강제적이지도 않으며 관대하고 유럽적인 이스파노아메리카니즘(hispanoamericanismo)의 수렴점이다.(Croce 2006, 68-69)

라틴아메리카가 지적 영역에서 스페인의 전범을 따라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점차 완화되고는 있지만 스페인 식민지들은 식민 모국이었던 스페인에서 전개된 문화적 흐름을 뒤따라야 하고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과 문화의 참조점이 되어야 한다는 당대 스페인의 일반적인 견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Croce 2006, 68-69).

이 논쟁은 1927년에 나타나는데, 이 사실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해 준다. 모네갈이 지적하고 있듯이, 1927년은 공고라 사후 300년이 되는 해로 27세대가 등장하면서 스페인에 새로운 문화적 기운이 싹트고 있던 해였다. 따라서 스페인 문인들 사이에 스페인 문학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로 이어지는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타났으며, 1898년의 재앙에서 역설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황금세기’ (nuevo siglo de oro)를 경험한 해이기도 하다.¹⁾ 1920년대 들어 다양한 문학 움직임들이 전위주의(vanguardismo)로

나타나면서 스페인 작가들은 98년 이후의 역사적 침체기를 대체할 문화적 자긍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1927년 진행된 지적 중심 논쟁은 침체되었던 스페인 문학이 27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활력을 통해 문화적 자부심을 일정부분 회복하고, 이것이 신대륙에 대한 우월감으로 등장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르틴 피에로 *Martin Fierro*』지를 근간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 잡지 7월 10일자에 나타난다.²⁾ 전위주의를 문학적 태도로 취하고 있던 이들 사이의 논쟁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논쟁을 전위주의의 주도권을 둘러싼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위주의를 주장했던 이들 사이의 대립은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 사이에 해소 할 수 없는 문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르틴 피에로』지의 입장은 더 이상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전범이 될 수 없으며,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문학적 전범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³⁾ 이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문인들의 반론과 스페인 작가들의 재반론으로 이어진 이 논쟁은 단순히 문학의 장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 사이에서 존재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즉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종속시키고자 하는 기예르모 데 토레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문화적 욕망과 이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

1) 모네갈은 이 논쟁을 다루는 글 제목을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정점: 또 다른 쓸모없는 논쟁 *El meridiano intelectual de Hispanoamérica: otra polémica inútil*”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논쟁의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쓸모없는’ 논쟁이지만, 그의 글의 주제로 등장할 만큼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지적 지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Monegal 2003; 53).

2) 마르틴 피에로 지에 두 번에 걸친 답변이 나타난다. 하나는 1927년 6-7월호에 “Un llamado a la realidad ¿Madrid, meridiano intelectual de Hispano-América?”라는 제목으로 9명의 작가들의 반론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같은해 8-9호(44/45)에 나타난다.

3) 이 논쟁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우르과이, 쿠바 등으로 확대 된다. 여기서는 『라 가세파 리베라리아』와 『마르틴 피에로』에 실린

에서 의미를 갖는다.

2. 보편주의와 국가주의 논쟁의 경우

1932년 멕시코에서 진행된 보편주의자와 국가주의자 간의 논쟁은 알레한드로 알론소(Alejandro Núñez)가 ‘동시대인들’ (Contemporáneos)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엘 유니베르살 일루스트라도 *El universal ilustrado*』에 3월 17일로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⁴⁾ 그가 제시한 질문의 요지는 멕시코 전위주의 세대가 위기에 봉착했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그가 쓰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 문학은 보편적인(universal), 다시 말해 유럽적인 리듬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멕시코의 문학적 전통의 최종 연결고리를 향해 가야하는가”라는 그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Sheridan 1999, 112).

유럽주의자들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이들 그룹이 취한 태도는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잡지가 폐간 되면서 동질적인 활동 공간을 갖고 못한 상태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멕시코 혁명 이후 당대의 문학적 현실에 대해 그들 내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논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멕시코 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혁명이라는 정치사회적 변혁에서 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 ‘어떻게’ 현실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방법론과 문학의 존재론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국가주의자를 대표하는 에르밀로 아브레우 고메스(Ermilo Abreu Gómez)와 보편주의 편에 섰던 살바도르 노보(Salvador Novo)의 일화에서 보듯이 당대 멕시코 지식인

4) 이 논쟁은 『엘 유니베르살 일루스트라도』의 775-783호(1932. 3. 17- 4. 2) 사이에 진행되었다. ‘동시대인들’이라는 용어는 1928년 출판된 『동시대인들 *Contemporáneos*』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군의 작가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들은 일관된 문학적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나 문학의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유럽 전위주의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들의 지적인 태도를 보다 급진화하고 대립구도로 몰아간다.⁵⁾ 이 논란의 보다 직접적인 시작은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 이후 자연스럽게 혁명이 갖는 시대사적 요구를 강조하게 되면서, “민중의 영혼을 발견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무관심한” 세대에 대한 경각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훌리오 히메네스 루에다는 “멕시코 문학의 여성화”라는 글에서 ‘동시대인들’의 문학을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당대의 혁명 소설들을 남성적인 문학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점차 이러한 남성적인 문학이 사회 문학과 결합하게 되면서 ‘동시대인들’에 대한 비판지점을 형성하게 된다.⁶⁾

그러나 이 논쟁이 시작하기 전 1931년에 이미 『동시대인들』지가 폐간되었기 때문에 “그룹 아닌 그룹”(Grupo sin grupo)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 동시대인들은, 당시 전위주의 그룹이 겪고 있던 일련의 쇠락 과정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울리시스 *Ulises*』(1927-1928)와 『동시대인들』의 폐간은 전위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식인 집단에게 있어 동시대인 그룹 혹은 전위주의 그룹의 위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Sheridan 1994, 388).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제출된다. 하비에르 비야우루티아(Javier Villaurrutia), 살바도르 노보, 그리고 베르나르도 오르티스 데 몬테야노(Bernardo Ortiz de Montellano)는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기는 자신들에 맞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즉 자의적으로 위기를 겪는다고 진단하고 이를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5) 멕시코 혁명이후의 반종교 분위기로 인해 당시 멕시코 가톨릭 교회는 유아영세를 주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밀리에 신부와 성당을 섭외해서 에르밀로 아브레우 고메스의 첫딸의 유아 영세를 주선하고, 이 비밀 영세식에 참석한 극소수의 인물 중 한명이 바로 살바도르 노보였다(Tenorio, <http://www.fractal.com.mx/F29tenorio.html>).

6) 훌리오 히메네스 루에다는 “el afeminamiento de la literatura mexicana” 이후 약 한 달 후에 쓴 “La influencia de la revolución en nuestra literatura”에서 혁명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혁명 소설 미학의 부재를 논하고 있다(Fabio Sánchez 2007, 208).

이 느끼고 있다고 반격한다. 이와 반면에 호세 고로스티사(José Gorostiza)와 사무엘 라모스(Samuel Ramos)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하게 된다. 다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존의 유럽중심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에르밀로 아브레우 고메스 전위주의 문학이 멕시코의 현실과 유리되어 있었다고 자성하고, “영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들은 삶도 문학의 생물학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위주의의 가장 심각한 과오는 우리 문학의 흐름을 무너뜨린 것이다.[...]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흐름을 끊었다. 우리 전통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영해(aguas territoriales)에서 기꺼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출항하는 어부의 여정을 위해 길을 떠나야 할 것이다.(Sheridan 1994, 391)

이러한 고로스티사와 라모스의 태도에 대해 노보나 비야우리피아는 비판을 하게 되는데, 특히 비야우리피아는 이런 국가주의자들의 태도를 열등감의 산물로 규정한다(Sheridan 1994, 390).

국가주의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비판은 3월 31일자 777호에서 호르헤 꾸에스따(Jorge Cuesta)에 의해 진행된다. 국가주의자들을 “바보스럽고”, “염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주의자들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진정한 국가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4. 21일자에서도 꾸에스따는 자신들은 비판적 그룹으로 이러한 “거짓 전통의 손쉬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미학적 모색을 하는 진정한 미학 그룹이라고 선언한다(Sheridan 1994, 393).

이에 대해 에르멜로 아브레우 고메스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보편주의자와 국가주의자 논쟁은 이어진다. 이렇듯 멕시코 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배경이 이 논쟁의 보다 본질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유럽의 전위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지역성과 보편성 논쟁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III. 논쟁의 내용: 유럽의 문화적 영향과 라틴아메리카적 자의식

1. 스페인 중심주의와 새로운 지적 중심의 형성

블라스 마따모로(Blas Matamoro)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독립이 진행되던 시기의 주요한 낭만주의적인 태도 중 하나는 “민중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창조의 산물들을 통합하는 자기 자신의 국가 언어, 즉 일종의 국가 정신의 물질화라는 문제의식”의 태동이다. 더 나아가 몇몇 극단주의자들은 스페인어 사용을 그만두고, 신생 공화국들이 표방하고 있는 근대성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언어인 영어나 불어의 사용을 주장했다고 지적한다(Matamoro 2007a). 독립과 함께 스페인의 언어와 문화에서 벗어나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지적 태도는 지적 중심 논쟁을 통해서 보다 논쟁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태도는 니콜라스 올리바리(Nicolás Olivari)가 스페인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마따모로도 극단적인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독립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Matamoro 2007b).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력과 1920년대 스페인의 “문화 제국주의” 경향이 충돌하게 된 것이 바로 ‘지적 중심’ 논쟁이다. 기예르모 데 토레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던 스페인으로부터의 이탈 경향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에 뿌리를 내리는 ‘라틴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즉 “라틴 아메리카 (América Latina), 라틴아메리카주의(latinoamericanismo) 그리고 이와 비슷한 용어들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앵글로 색슨의 병합적 의도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라틴화, 스페인 향구

는 한 곳도 들르지 않거나 혹은 우리나라(역주, 스페인)를 볼 것 많은 관광지로만 간주하고 자신의 활동의 중심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선택해 떠나는 수많은 학생, 작가 그리고 예술가들의 행렬을 더 이상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따라서 마드리드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Hispanoamérica)의 지적 중심으로 제안하고 고양할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⁷⁾

여기에 대한 반론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위주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던 『마르틴 뻬에로』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데 토레의 지적 중심 주장에 대한 최초의 대응은 이 잡지의 42호에 나타난다. 여기에 실린 글 중에서 빠블로 로하스 빠스(Pablo Rojas Paz)는 아메리카에 반하는 개념들의 역사는 길고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범아메리카주의(panamericanismo)를, 프랑스가 라틴아메리카주의(latinamericanismo)를, 스페인이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주의(hispanoamericanismo)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또 이 개념들은 내연과 외연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열망을 감추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국주의적 열망들은 이따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데 토레의 지적 중심으로서 마드리드라는 주장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는 간주한다. 여기에 대해 그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승된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이야말로 한 민족의 정신적 능력의 기호라고 간주하는 것이다(Croce 2006, 75-76).

보르헤스의 경우에도 “마드리드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드리드의 오케스트라는 탱고를 온전하게 연주할 수 없고, 마드리드의 사람들은 속쓰리지 않고 브라질 산 사탕수수를 먹을 수 없으며, 또 그레게리아(greguería)를 제외한 다른 지적인 세련됨을 갖지 못한 도시”라고 비아냥거린다. 결국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가 알기로는 몬테비데오에도 부에노스

7) 기예르모 토레의 관점에 따르면 스페인어권 아메리카를 라틴아메리카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스페인어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Marcelo 2006, 69).

아이레스에도 스페인에 대한 친근감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있다면 오히려 이탈리아에 대한 친근감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스페인 중심주의를 비판한다(Croce 2006, 80).

이러한 『마르틴 뻬에로』를 근거지로 한 작가들의 반박에 대해 『라 가세따 리페라리아』 지면을 이용한 재반박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등장한 데 토레의 글은 다소 무책임한 측면을 보여준다. 즉 지적 중심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글에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스페인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아메리카의 지적 독립을 위한 진실한 고민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Croce 2006, 90) 물론 자신의 첫 번째 글을 익명으로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까닭도 있었겠지만 다른 논자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데 토레의 진심이 아메리카의 지적 독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지적 중심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논전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 지식인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일정부분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논쟁을 보르헤스와 기예르모 데 토레 간의 울트라이즘(ultraísmo)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해하는 까르멘 알레마니 베이(Carmen Alemany Bay)같은 입장이 존재한다(Alemany Bay 1998, 21-23). 그녀는 울트라이즘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해 가면서 기예르모 데 토레가 전위주의 문학에서 체계모니를 차지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보르헤스가 초기 울트라이즘에 참여했다가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새로운 입장을 내보이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논쟁의 배경에는 울트라이즘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지역 문인들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⁸⁾ 물론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

8) 비센테 우이도브로(Vicente Huidobro)가 마드리드를 방문하게 되는 1918년에, 일군의 젊은이들이 라파엘 칸시노스-아센스(Rafael Cansinos-Asséns) 주위에 모여 그해 가을 첫 번째 울트라이즘 선언을 발표한다. 이 울트라이즘은 당시의 모데르니즘과 98세대의 문학관에 대한 비판과, 당시 우이도브로의 창조주의(creacionismo)의 자극과 다른 유럽 전위주의 경향의 스페인적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해 가능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울트라이스모가 차별성을 주장했을 때에는 이미 대서양을 사이에 둔 문학적 토양의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 간의 주도권 갈등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다. 또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마르틴 뻬에로』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불가피하게도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초기의 전위주의적인 색채를 완화시키게 되어 이 잡지의 쇠퇴를 촉진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 논쟁을 언어, 문화 및 정치적 정체성, 전위주의와 관련되어 해석하는 일반적인 맥락이외에도 이 시기의 문학시장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빠블로 바에는 데 토레의 글에 중요한 두 개의 논제가 존재하는 데 하나는 라틴주의(latinismo)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과 관련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Alemany Bay 1998, 57) 라틴주의와 관련하여 언어와 정체성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앞서 설명했고, 여기서는 문학시장을 간략하게 주목해 보자. 데 토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 출판 시장이라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아메리카에 대한 우리 서적과 잡지의 수출이 달성해야할 수치에 비교해서 매우 빈약하다면,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페인 서적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서적들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상호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허세는 무슨 소용이고,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은 무엇일까?(Alemany Bay 1998, 67)

이런 데 토레의 언급을 빌어 우나무노는 이 논쟁의 중심 논제는 기본적으로 출판시장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예르모 데 토레가 주장하는 문제를

그러나 데 토레는 비센테 우이도브로의 영향을 부정하고 울트라이스모를 자신들의 고유한 미학적 태도로 주장하게 된다. 1920년 기예르모가 “Manifiesto Vertical”을 발표하면서 기예르모는 당대 스페인의 전위주의 경향을 이끄는 이론가로 위치를 굳히게 된다. 또한 처음 울트라이스모 선언에 참여했던 보르헤스는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가, 데 토레의 울트라이스모와는 차별적인 경향을 내보인다 (Alemany Bay 1995, 13-26).

문자 그대로 ‘지적’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editorial)을 둘러싼 상업적 이윤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예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관심의 문제라는 것이다(Alemany Bay 1998, 128). 이렇듯 이 논쟁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어적, 문학적 정체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 논쟁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런 입장의 배경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서양을 사이에 둔 지식인들의 차별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2. 혁명과 현실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보편주의와 국가주의 논쟁은 문학이 멕시코의 당면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대인’ 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멕시코의 진정한 문학은 서구문학과 대화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대립이다. 물론 보다 본질적으로는 시대적 조건이었던 멕시코 혁명의 결과들을 문학이 어떻게 전유해야 하는가, 혁명과 문학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할 것이다. 멕시코 혁명의 성공이후 국가적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벽화주의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문학 역시 여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즉 국가적 이데올로기로서 통합된 멕시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멕시코성을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혁명 이후 과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당대 문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벽화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회화의 영역과 달리 1920년대 이후 ‘동시대인’ 그룹이 지배하고 있던 문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과업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는 자각이 ‘동시대인들’과 전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 비판은 단순하게 전위주의와 동시대인에 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이 논쟁의 배경과 결과물이 갖는 생산적인 성격을 간과하게 된다.

이 논쟁의 배경에는 혁명의 제도화와 동시에 멕시코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문학 역시 회화처럼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자들의 요

구가 존재한다(Houvenaghel 2002, 45). 국가주의자들과 보편주의자들간의 대립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당시 국민교육부 장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이었던 바스콘셀로스에 의해 1923년 소집된 작가 예술가 회의(Congreso de Escritores y Artistas)였다. 여기서 바스콘셀로스는 정치 혁명과 미학 혁명을 일치시키고자 했으며, 당대 국가 현실과 국가적 기획이 문학적 형식에 대한 토론과 모색을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 작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양할 지속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글을 써야하고, 문학은 멕시코 국민의 정신적 결합과 국가 부활에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작가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해야한다는 등의 논의가 정식화된다. 이런 논의는 결국 멕시코적인 것의 존재 유무, 당면 현실, 국가 정서(sentimiento nacional), 진정한 전통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Sheridan 1999, 32-35).

이 논쟁은 ‘국가적 표현’(expresión nacional) 주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알폰소 레예스(Alfonso Reyes)를 문학적 스승으로 하고 있는 ‘동시대인들’과, 집단적인 정체성은 약하지만 에르밀로 아브레우 고메스와 엑토르 빠레스 마르티네스를 대표로 하는 국가주의자들 사이에 진행된다. 앞에 적은 것처럼 동시대인들은 1930년대 들어 그룹으로서의 집단성을 상실하고는 있지만, 1920년대 내내 일정한 미학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1932년 논쟁과 이후 일련의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미학적 태도를 강조했다. 이들의 기본적인 미학적 태도는 당면 현실 혹은 지역적 색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면에 침잠하면서 정신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혁명이후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⁹⁾ 이렇게 멕시코 고유의 전통 보다는 서구 근대의 문학적 흐름에 주목하고, 당면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학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말린채 같은 놈들”

9) 알폰소 레예스는 아버지인 베르나르도 레예스(Bernardo Reyes)가 마데로에 반기를 들었다가 전투에서 죽은 이후, 정치적 박해와 망명을 경험했는데, 이런 그의 개인적 경험이 그의 문학적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malinchinista)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Croce 2006, 128).

이처럼 동시대인들은 당시의 전위주의의 문제를 내에서 자신들의 창조적 고민들을 해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국가주의자들은 혁명, 원주민 담론, 지역적 전통에 주목하여 언급한 ‘국가적 표현’을 고민했다. 이러한 문학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동시대’ 인들과 스페인의 27세대의 영향 관계라는 맥락을 통해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시대인들은 27세대의 미학적 입장을 자신들의 미학적 입장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유럽지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본질적으로 유럽지향적인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의 미학적 입장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역적 현실의 문제 보다는 전위주의라는 유럽적 경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문화적 원시력의 자장 안에 위치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논쟁을 촉발했던 알레한드로 누네스 알론소가 진행했던 설문 질문에서는 전위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젊은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학적 혼란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 당신들의 작품은 전위주의 운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충분합니까? [...]
- 멕시코 문학은 보편적인(universal), 다시 말해 유럽적인 리듬을 따라 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멕시코의 문학적 전통의 최종 연결고리를 향해 가야합니까? [...]
- 당신은 결국 당신의 작품에 만족하십니까? [...]
-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Sheridan 1999, 11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으로 논쟁이 시작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논쟁의 실마리를 이해 할 수 있다. 호세 고로스티사는 “우리가 살고 환경에 대응하는 내것 나아가 멕시코적인 것”, “우리들의 감수성” 그리고 “우리들의 멘털리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럽지향적인(europeizante) 태도를 수정”한다고 말한다. 사무엘

라모스 역시 “유럽을 모방하는 것은 빈약한 요청”이며 자신들의 “맥박과 이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하비에르 비아우루티아(Xavier Villaurrutia)와 살바도르 노보(Salvador Novo)는 자신들을 유럽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Sheridan 1994, 390-391).

또한 아브레우 고메스에 따르면 “멕시코 전위주의는 우리 문학에 조용하지 않으며”, 멕시코 전위주의는 단순하게 외국 전위주의의 표본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heridan 1994, 394). 이러한 전위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적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문학 양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의 미학적 태도는 결국 혁명 소설에 대한 정식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대한 꾸에스타의 반론은 국가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롭지 않으며, 멕시코 문학이라는 개념은 멕시코 초기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반론에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유럽과 차별되는 멕시코성을 모색했지만, 그 기원에서 볼 때 멕시코성에 대한 고민은 그리 순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성의 모색에 내재되어 있는 낭만주의적인 태도 역시 진정한 멕시코성의 모색과는 구별되는 유럽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꾸에스타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낭만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주의자들이야 말로 오히려 “진정한” 전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만드는 정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한다(Sheridan 1994, 397). 물론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전통이 고전이라는 점에서 국가주의자들의 입장과는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론적인 입장에서 국가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그의 비판은 국가주의자들이 예술적 자질을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의 유용성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아브레우에게서 멕시코적인 감수성이 우선시되고 있다면, 꾸에스타는 “예술에 의해 국가성이 측정되는 것이지, 국가성에 의해 예술이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다(Croce 1996, 136). 또한 멕시코성과 보편성을 둘러싼 논의와 알폰소 레예스와 엑토르 빼레스 마르티네스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알폰소 레예스는 유럽적인 경향과의 소통을 통한 멕시코 문학

의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주장한다.

이 논쟁은 이후 현실 정치와 결합하게 되면서, 문학 논쟁의 성격을 넘어서는 ‘정치적’ 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1932년 논쟁은 한편으로 국가주의적 열정을 만들어낸 미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긴장의 결과물이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열정을 근대정신의 일반적인 과정에 끼워 넣으려는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Sheridan 1999, 94-102).

III. 결론

지금까지 두 개의 논쟁을 통해 20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간략한 지형도를 살펴보았다.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 대한 세밀한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두 개의 논쟁을 통해 특정한 지역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문학에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일반화를 통해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갖는 특징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적 중심 논쟁의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갖는 특수성이, 또 보편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은 멕시코 혁명이라는 시대사적 조건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논쟁이 스페인의 전위주의를 매개로 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논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적 논쟁은 스페인 지식인들과 『마르틴 피에로』를 기반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 사이에 문화적 전범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성격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편주의자와 국가주의자 간의 논쟁이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가치론적 맥락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을 또한 당시 유럽의 지배적인 전위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보편주의자들의 정신적 사부로 평가되는 알폰소 레예스가 지속적으로 유럽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또 이들 역시 자신들

의 미학적 태도로 전위주의를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두 개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세가 초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지형은 유럽문화의 문화적 길항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문화적 자장 내에서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Alemany Bay, Carmen(1995), “Una polémica sobre identidad cultural entre Madrid, Roma y Buenos Aires,” *Relaciones culturales entre Italia y España*, Edited by Enrique Giménez, Juan A. Ríos, Enrique Rubio, Alicante: Universidad de Alicante, pp. 13-26.
- Alemany Bay, Carmen(1998), *La polémica del meridiano intelectual de hispanoamérica(1927)*: Estudios y textos, Alicant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 Bosoer, Sara, “Algo más que hispanismo - antihispanismo en la polémica por el meridiano: lengua, nacion y mercado a fines de la decada de 1920,” <http://congresoespanyola.fahce.unlp.edu.ar/programa/ponencias/BosoerSara.pdf> (2010년 3월 15일 검색).
- Croce, Marcela(ed.)(2006), *Polémicas intelectuales en América Latina: Del “meridiano intelectual” al caso Padilla(1927-1971)*, Buenos Aires: Simurg.
- Fabio Sánchez, Fernando(2007), “Contemporáneos y estridentistas ante la identidad y el arte nacionales en el México post-revolucionario de 1921 a 1934,”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66, pp. 207-223.
- Houbenaghel, Eugenia(2002), “Alfonso Reyes y la polémica nacionalista de 1932,” *Foro hispánico*, 22, pp. 45-46.
- Matamoro, Blas(2007), “La polémica sobre la independencia idiomática

- americana(II),” http://cvc.cervantes.es/el_rinconete/antiores/febrero_07/14022007_01.htm (2010년 3월 2일 검색).
- Matamoro, Blas(2007), “Madrid, ¿meridiano cultural hispánico(III)?,” http://cvc.cervantes.es/el_rinconete/antiores/febrero_07/23022007_01.htm (2010년 3월 2일 검색).
- Monegal, Emir Rodríguez(2003), *Obra selecta*, Venezuela: Biblioteca Ayacucho.
- Sheridan, Guillermo(1993), *Los Contemporáneos ayer*,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heridan, Guillermo(1994), “Entre la casa y la calle: la polémica de 1932 entre nacionalismo y cosmopolitismo literario,” *Cultura e identidad nacional*, Edited by Roberto Blancarte,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heridan, Guillermo(1999), *México en 1932: la polémica nacionalist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Tenorio, Antonio, “Ermilo Abreu Gómez,” Fractal, <http://www.fractal.com.mx/F29tenorio.html> (2010년 3월 5일 검색).

이 성 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423호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2010년 3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28일

